

생명사랑,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주간

2015. 5. 4. ~ 5. 10.

전남농업정보

32
VOL

주간 기상전망

농산물 출하 및 가격동향

엽근채소, 양념채소 가격동향

전남 농특산물 수급동향

전남 양파·마늘 수급동향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전남도, 중화권 수출시장 개척 성과

저비용·고소득 농업기술정보

전남농기원, 미니단호박 2기작 재배 본격 추진

정책동향

우수 후계농업경영인 지원 신청하세요

해외 농업정보

멕시코, 조류독감이 발병한 아이오와로부터
가금류 및 계란 수입금지



전라남도
JeollaNamdo

요 약

※ 주간 기상전망(기상청)

-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 많겠음
-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음

※ 농산물 출하 및 가격동향(농촌경제연구원)

▶ 엽근채소 : 배추, 무

- 배 추 : 배추 가격은 월동 저장배추 및 봄배추 출하량 감소로 전월 및 평년보다 높은 6,000~7,000원/10kg 전망
- 무 : 무 가격은 월동 저장무 출하량 감소로 작년 및 전월보다 높지만 평년보다 낮은 9,000~10,000원/18kg 전망

▶ 양념채소 : 건고추, 마늘

- 건고추 : 건고추 5월 산지가격은 재고량이 전년보다 적으나, 2만여 톤 이상 남아있어 평년(5,792원/600g)보다 다소 낮을 전망
- 마 늘 : 마늘 5월 도매가격은 재고량 증가로 평년(3,877원/kg)보다 다소 낮은 3,500~3,700원/kg 전망

※ 전남 농특산물 수급 동향(전라남도)

▶ 전남 양파·마늘 수급동향

- 양 파 : 재배면적은 전국의 51%인 11,077ha이며 도매시장 가격은 851원/kg(전년 698원 대비 22% ↑)

- 마 늘 : 재배면적은 전국의 29%인 6,892ha이며 도매시장 가격은 3,460원/kg(전년 2,740원 대비 26% ↑)

❁ 농축산식품 수출입 동향(전라남도)

- ▶ 전남도, 중화권 수출시장 개척 성과
- ▶ “중국 온라인 시장 식품 진출, 20~40대 취향 맞춘 판매군 다양화가 관건”
- ▶ 올해 분 수출물류비 지원 신청 접수...곡류·채소종자·버섯종균 포함
- ▶ 밀라노엑스포 겨냥 한식홍보 ‘한국 밥상으로의 초대’ 호응 홍보 강화
- ▶ 칠레농산물 개방 더 확대

❁ 농업기술정보(전남농업기술원)

- ▶ 전남농기원, 미니단호박 2기작 재배 본격 추진
- ▶ 2015년산 벼, 맥류, 두류 등 우량종자 생산에 박차
- ▶ 전남농기원, 농촌 청년사업가 양성사업 큰 호응
- ▶ 고흥군, 고품질 마늘 생산 위한 기술교육 실시

❁ 정책동향(전라남도, 농림축산식품부)

- ▶ 우수 후계농업경영인 지원 신청하세요
- ▶ 전남도, 10대 고품질 브랜드쌀 확정
- ▶ “농식품부, 롯데와 함께 상생의 씨앗을 뿌린다!”
- ▶ “분산된 농촌산업육성정책, 추진체계 통합 시급”

❁ 해외 농업정보(한국농촌경제연구원)

- ▶ 멕시코, 조류독감이 발병한 아이오와로부터 가금류 및 계란 수입금지
- ▶ 해외 곡물시장 시황(시카고 선물거래소)
 - 밀 선물가격은 남부평야의 작황에 이상적인 강우로 하락
 - 옥수수 선물가격은 미국 중서부지역의 빠른 옥수수 파종 전망으로 10월 이후 최저치로 하락
 - 대두 선물가격은 수출수요 강세로 강보합 마감

❁ 고소득 농업사례(전남농업기술원)

- ▶ 전남농기원 창업지원, 고구마 먹인 돼지고기 명품화
- ▶ 전남 유기농 선도 농가를 찾아서-장흥한라농장 광석주 대표

❁ 사업신청 안내(전남도)

- ▶ 우수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 신청·접수
 - 신청기한 : 5. 22.한
 - 신청대상 : 2010년 12월말 이전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농업인
 - 접 수 처 : 읍·면·동사무소, 시군 농업기술센터
 - 선발인원 : 300명(전국)
 - 선발기준 : 교육훈련, 경영관리 등 13개 지표, 27개 항목 평가
- ▶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신청
 - 가입품목 : 벼, 고구마, 옥수수

- 가입기간 : 5. 4. ~ 6. 12.(벼 4. 20.~6. 5, 고구마 5. 4.~5. 29. 등)
- 가입자격 : 벼 1천m², 고구마 2천m², 옥수수 3천m² 이상 재배농가 및 법인
- 사업량 : 600ha/46개 품목(본사업 28, 시범 18)
- 사업비 : 600억원(국비 300, 도비 60, 시군비 120, 자담 120)
- 취급기관 : 지역농협
- 보험금 지급 : 보험사고 발생 시 피해 정도에 따라 보험 가입 시
선택한 보장수준에 따라 산정 지급

▶ '15년도 녹색축산육성기금 융자사업 신청·접수(2차)

- 사업기간 : '15. 1. ~ 12.
- 융자규모 : 150억원(금회 2차 선정-48억원)
- 융자대상 : 친환경축산물 인증 또는 HACCP 인증 농가, 친환경
축산물 가공·유통·판매업체 등
- 지원내용
 - 가축 사육환경 개선, 친환경축산물 가공유통판매 지원, 원료구입
등 운영자금, 기타 친환경 축산에 필요한 정책사업 등

✿ 주요 농축산물 가격 정보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축산물품질평가원)

□ 품목별 도·소매 정보

(2015. 5. 4. 기준/단위 : 원)

부류	품 목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 락 율(%)	
		판매 단위	당일 (5/4)	전주 (4/27)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전년 대비	평년 대비
식 작 물	쌀(일반계)	20kg	40,800	40,800	40,800	42,900	41,300	↓ 4.9	↓ 1.2
	콩(백태)	35kg	136,000	136,000	136,000	142,000	189,407	↓ 4.2	↓ 28.2
	고구마(밤)	10kg	30,400	29,400	28,800	21,400	26,093	↑ 42.1	↑ 16.5
	감자(수미)	20kg	46,400	47,400	35,200	20,600	25,967	↑ 125.2	↑ 78.7
채 소 류	배추(월동)	1kg	590	530	500	340	854	↑ 73.5	↓ 30.9
	양배추	10kg	6,900	5,700	5,875	3,740	6,175	↑ 84.5	↑ 11.7
	오이(다다기계통)	15kg	24,000	31,000	33,250	26,667	34,250	↓ 10.0	↓ 29.9
	애호박	8kg	11,600	15,000	18,050	14,750	14,040	↓ 21.4	↓ 17.4
	토마토	10kg	25,200	32,400	29,550	30,300	30,477	↓ 16.8	↓ 17.3
	무(월동)	1kg	510	460	500	500	562	↑ 2.0	↓ 9.3
	당근	20kg	23,200	22,400	21,900	28,300	29,420	↓ 18.0	↓ 21.1
	건고추(화건)	60kg	820,000	820,000	820,000	640,000	776,933	↑ 28.1	↑ 5.5
	풋고추	10kg	67,800	57,400	40,750	55,550	49,897	↑ 22.1	↑ 35.9
	마늘(난지)	10kg	35,400	35,400	34,600	27,400	37,993	↑ 29.2	↓ 6.8
	양파	1kg	830	490	668	643	910	↑ 29.1	↓ 8.8
	대파	1kg	1,720	1,470	1,480	1,060	1,517	↑ 62.3	↑ 13.4
	파프리카	5kg	21,400	24,800	26,400	23,850	28,190	↓ 10.3	↓ 24.1
	방울토마토	5kg	19,000	21,800	22,750	22,200	23,327	↓ 14.4	↓ 18.5
	딸기	1kg	6,800	8,200	7,900	7,550	7,004	↓ 9.9	↓ 2.9
과 일 류	사과(후지)	15kg	65,800	63,800	63,800	83,600	78,573	↓ 21.3	↓ 16.3
	배(신고)	15kg	40,800	40,800	40,300	46,100	45,877	↓ 11.5	↓ 11.1

부류	품 목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 락 율(%)	
		판매 단위	당일 (5/4)	전주 (4/27)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전년 대비	평년 대비
특용 작물	참깨(백색)	30kg	532,000	532,000	528,000	534,000	567,555	↓ 0.4	↓ 6.3
	들깨	45kg	420,000	420,000	426,000	450,000	374,333	↓ 6.7	↑ 12.2
	새송이버섯	2kg	8,600	8,600	8,450	8,200	8,383	↑ 4.9	↑ 2.6
축 산 물 (소 매 가)	쇠고기(한우등심)	100g	6,228	6,488	6,451	6,172	5,826	↑ 0.9	↑ 6.9
	돼지고기(삼겹살)	100g	1,840	1,970	1,829	1,933	1,757	↓ 4.8	↑ 4.7
	닭고기	1kg	5,412	5,559	5,426	6,576	5,897	↓ 17.7	↓ 8.2
	계란(특란)	10개	1,988	1,980	1,961	1,997	1,870	↓ 0.5	↑ 6.3
	우유	1리터	2,548	2,548	2,548	2,542	2,292	↑ 0.2	↑ 11.2

* 자료 출처 : aT KAMIS(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가축 및 축산물 산지시세

(2015. 5. 4.기준)

구 분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등 락 율(%)	
					전주 대비	전년 대비
큰 소 (600kg)	암	4,731 천원	4,738 천원	3,910 천원	↓ 0.1	↑ 21.0
	거세	5,620 "	5,621 "	5,252 "	-	↑ 7.0
송아지 (6~7월)	암	2,130 "	2,186 "	1,399 "	↓ 2.6	↑ 52.3
	수	2,680 "	2,643 "	2,445 "	↑ 1.4	↑ 9.6
육우(600kg)		3,587 "	3,630 "	2,406 "	↓ 1.2	↑ 49.1
젖소수송아지(7일령)		149 "	133 "	16 "	↑ 12.0	↑ 831.3
돼지(110kg)		433 "	404 "	418 "	↑ 7.2	↑ 3.6
육계(원/kg)		1,901 원	1,887 원	1,680 원	↑ 0.7	↑ 13.2
계란(원/특란10개)		1,403 원	1,365 원	1,310 원	↑ 2.8	↑ 7.1
오리(원/kg)		2,333 원	2,333 원	3,167 원	-	↓ 2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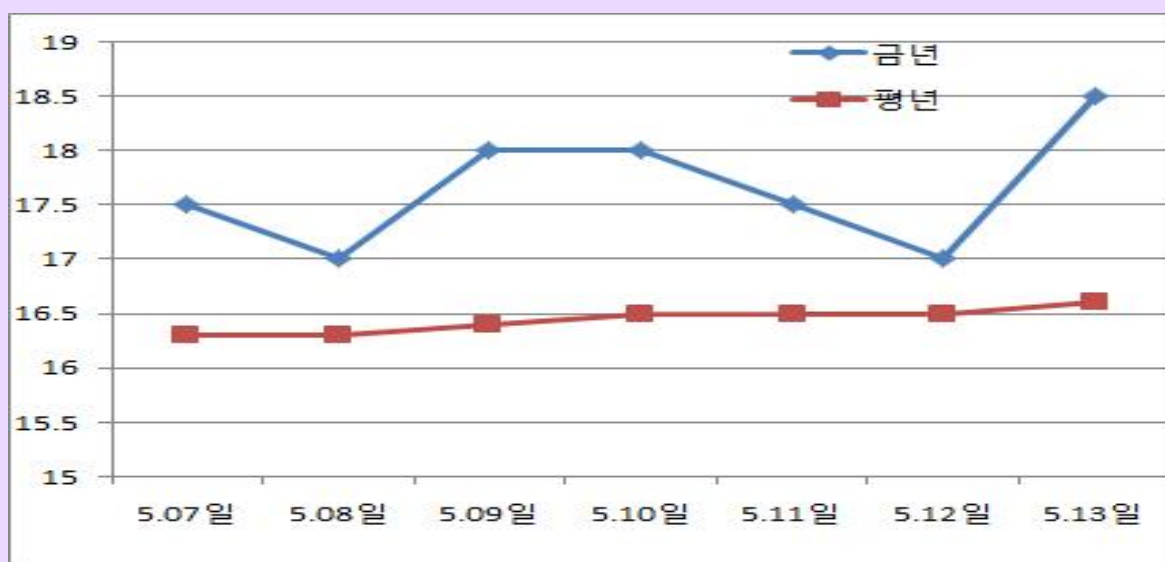
* 자료 출처 : 축산물품질평가원

1. 주간 기상전망

(기상청 중기예보 /목포 기준)

일 별	평균기온(℃)			최고기온(℃)			최저기온(℃)			강수량(mm)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평년
평균(계)	17.6	16.4	1.2	21.9	21.6	0.3	13.4	12.4	0.3	3.5
5. 07.(목)	17.5	16.3	1.2	21	21.5	-0.5	14	12.1	-1.9	3.6
5. 08.(금)	17	16.3	0.7	22	21.6	0.4	12	12.1	0.1	4.1
5. 09.(토)	18	16.4	1.6	23	21.7	1.3	13	12.3	-0.7	3.3
5. 10.(일)	18	16.5	1.5	22	21.7	0.3	14	12.5	1.5	2.8
5. 11.(월)	17.5	16.5	1	21	21.6	-0.6	14	12.5	1.5	3.8
5. 12.(화)	17	16.5	0.5	21	21.4	-0.4	13	12.6	0.4	3.8
5. 13.(수)	18.5	16.6	1.9	23	21.5	1.5	14	12.7	1.3	3.1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평균 기온(℃)>

2. 농산물 출하 및 가격동향

엽근채소 : 배추, 무

○ (배 추)

- 배추 가격은 월동저장배추 및 봄배추 출하량 감소로 전월 및 평년보다 높은 6,000~7,000원/10kg 전망

○ (무)

- 무 가격은 월동저장무 출하량 감소로 작년 및 전월보다 높지만 평년보다 낮은 9,000~10,000원/18kg 전망

양념채소 : 건고추, 마늘

○ (건고추)

- 건고추 5월 산지가격은 재고량이 전년보다 적으나, 2만여 톤 이상 남아있어 평년(5,792원/600g)보다 다소 낮을 전망

○ (마 늘)

- 마늘 5월 도매가격은 재고량 증가로 평년(3,877원/kg)보다 다소 낮은 3,500~3,700원/kg 전망

* 출처 : 농촌경제연구원

3. 전남 농특산물 수급 동향

전남 양파·마늘 수급동향

○ (양 파)

- 재배면적 : 11,077ha(전년대비 8% 감, 평년대비 1% 증) - 전국의 51%
 - 조생종 2,137(19%), 중만생종 8,940(81%)
- 발매기 거래
 - (조생종) 8~11천원/3.3m²(전년 5~7천원/3.3m²) * 90%이상 거래완료
 - (중만생) 7~8천원/3.3m²(전년 5~6천원/3.3m²) * 10%미만 거래
- 출하동향 : 고흥 35%, 무안 2%(하우스 60%) 출하
 - 조생종 본격출하 시기 : 고흥(4. 18 ~ 5. 5), 무안(4. 27 ~ 5. 10)
- 도매시장 가격('15.4.28.현재, 상품기준)
 - 양파 : 851원/kg(전년 698원 대비 22% ↑, 평년 711원 대비 20% ↑)

○ (마 늘)

- 재배면적 : 6,892ha(전년대비 7% 감, 평년대비 13% 감) - 전국의 29%
 - 남도 5,355(78%), 대서 1,344(19%), 기타 193(3%)
- 발매기 거래 : 11~12천 원 / 3.3m²(전년 7~8천 원 / 3.3m²)
 - 거래실적 : 고흥 70%, 해남 60%, 신안 65% * 전년도 거래실적 35~40%
- 도매시장 가격('15.4.28.현재, 상품기준)
 - 마늘 : 3,460원/kg(전년 2,740원 대비 26% ↑, 평년 3,500원 대비 1% ↓)

* 출처 : 전라남도

4. 농림축산식품 수출입동향

■ 전남도, 중화권 수출시장 개척 성과

- 광저우·홍콩·타이페이서 10개 업체 286만 달러 수출계약 -
- 전라남도는 지난 25일까지 1주일간 참살이영농조합법인 등 10개 수출업체로 구성된 중화권(광저우·홍콩·타이페이) 무역교류단을 파견, 현지 바이어와 수출상담을 통해 총 286만 3천 달러의 수출MOU를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 참가 업체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 현지 민간네트워킹을 활용해 시장성 조사를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지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 품목과 도내 기업 품목이 맞아떨어져 수출입 가능성이 높은 기업으로 선발했다.
- 업체가 선정된 이후 민간네트워킹에서는 최종 83개 바이어를 발굴했으며, 참가 기업들이 전화나 이메일 등을 통해 최소한 3회 이상 사전 상담을 하도록 통역과 이메일 번역을 지원했다.
- 무역교류단 출발 전에는 바이어 응대 상담 요령, 시장 환경, 경쟁 국가 및 시장성 사전 설명회를 개최해 업체 스스로 상담 능력을 갖추도록 했다.
- 이렇게 사전에 진행된 일련의 프로그램에 따라 집합상담과 개별 상담을 실시한 결과 참살이영농조합(유자차) 46만 4천 달러, 혜정농원(삼계탕) 1만 2천 달러, 완도전복(냉동전복) 131만 달러, 씨스타(해조류 가공품) 2만 4천 달러, (주)글로벌오가닉푸드(유기농차) 7만 달러, (주)별교꼬막(통조림) 76만 7천 달러, 수형식품(조미김) 8만 8천 달러, 해농식품(김가루) 5만 달러, 대대로영농조합(주류) 4만 5천 달러, (주)에스에프시(계면활성제) 3만 3천 달러 등 총 10

개 업체에서 286만 3천 달러의 수출 MOU를 체결했다.

- 이번 무역교류단에 참가했던 업체들은 “사전에 정보를 정확하게 숙지해 현지 수출상담을 유리한 조건에서 할 수 있었다”면서 전반적으로 시장개척 성과에 만족해하며 이 같은 무역교류단의 확대를 희망했다.
- 배유례 전라남도 국제통상과장은 “광저우는 중국 남부지역의 수출입 창구이고, 홍콩은 중국 남부도시 교역 관문으로 한국 제품에 많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으며 타이페이는 한국에 매우 우호적이어서 오랜 교류로 우리 제품을 선호하는 지역”이라면서 “이번 무역교류단의 수출 MOU 체결이 실제 선적으로 이뤄지도록 사후 마케팅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시장 다변화를 위한 바이어의 지속적인 동향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출처 : 전라남도

■ “중국 온라인 시장 식품 진출, 20~40대 취향 맞춘 판매군 다양화가 관건”

- 꾸준한 온라인 판매 물량 확보, 홍보·판촉활동 필요 -

- 우리 농식품의 새로운 수출 판로로 각광받고 있는 중국 온라인 식품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입점 품목 다변화를 위한 노력과 지속적인 물량 공급을 통한 신뢰도 구축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 농림축산식품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고,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주최한 ‘2015 한·중 FTA 비즈니스 플라자’가 4월 27일 일산 킨텍스(KINTEX)에서 개최됐다.

- 특히 이번 행사에는 중국 최대 온라인 식품 쇼핑몰 ‘이하오펜(1號店)’을 비롯한 현지 온라인 식품 수입 바이어들이 참여해, 우리 농식품의 중국 온라인 식품시장 진출 확대에 대한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됐다.
- 행사에 참가한 다수의 현지 온라인 식품 구매 바이어들에 따르면 중국 온라인 식품시장에 진출한 우리 농식품의 대부분은 조미김·김스낵을 비롯한 김 제품과 유자차, 오리온·해태 등 일부 식품대기업 브랜드 스낵류로, 입점 품목이 단조로워 온라인으로 한국산 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선택의 여지가 좁은 편이다.
- 징동상청(京東商城)의 캐시 야오(Kathy Yao) 매니저는 “한국의 식품업체들이 그동안 대형마트 등 현지 오프라인 마켓을 통해 인지도를 쌓은 김과 유자차 위주로 온라인 마켓에 진입하려다 보니, 일본·동남아 등 다른 수입산 식품과 비교해 판매군이 부족한 것이 단점”이라고 지적했다.
- 이하오펜의 셸리 쉐(Shirley Xue) 매니저는 “중국 온라인 마켓의 최대 고객층은 20~40대로, 이들의 취향을 재빠르게 읽어내는 것이 한국산 식품 입지 강화의 주요 관건”이라며 “장류와 떡볶이·비빔밥과 같은 한식편의식품, 유아용 간식 등 유망품목을 중심으로 주 고객층 취향에 맞는 신상품을 개발해 온라인 마켓에 입점을 확대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온라인 판매 물량 확보가 쉽지 않은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참가 바이어들에 따르면 한류 영향과 좋은 품질로 한국산 식품 수요가 온라인 마켓 내에서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검역·통관 지연이나 수출업체의 단발성 공급 등의 이유로 물량 확보가 쉽지 않다는 것.

- 징둥상청의 대형 공급벤더인 텐진시서풍과무유한공사의 이링 정(Yiling Zheng) 매니저는 “온라인 주문 대비 확보된 물량이 많지 않다보니 배송이 지연되고 늦은 배송으로 주문 취소 사례가 종종 있는데, 이는 결국 신뢰의 문제로 이어진다”며 “상품 발주를 해도 물량 확보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일방적으로 거래를 끊어버린 업체도 더러 있어, 중국의 온라인 마켓 진출을 염두한다면 물량을 꾸준히 공급할 수 있는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 이 밖에 활발한 홍보 및 판촉활동에 대한 중요성도 강조됐다. 중국 RT마트의 직영 온라인 쇼핑몰 ‘페이니우왕’의 수 루 밉(Xu Lu Ming) 이사는 “요리법 등 제품 설명이 상세하지 못하고, 춘절 등 중국의 주요 쇼핑시즌에 맞춘 특판행사 등이 미비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 한편, 중국의 온라인 MD를 포함한 수입바이어 51개사와 국내 식품업체 100개사가 참가한 농식품 수출상담회에는 총 556건 3700만 달러 상당의 수출상담성과를 얻었으며, 농식품부와 aT는 이번 상담회가 실질적인 수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

■ 올해 분 수출물류비 지원 신청 접수..곡류·채소종자·버섯종균 포함

- 농림축산식품부가 시행하고 있는 ‘수출물류비(중앙정부) 지원 사업’의 올해 분 신청 및 지급이 시작됐다.
- 수출물류비 지원 사업은 우리 농식품의 수출확대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정부의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 활용, 포장·운송 등 물류

비 부담이 큰 농식품에 대한 수출물류비를 정부에서 일부 지원해주는 제도다. 올해는 총 380억400만원의 재원이 마련돼 있으며, 과실류·채소류·화훼류·김치류·축산물·인삼류 등 신선농산물에 292억4200만원, 전통주·장류·차류·쌀 가공품·미곡류를 포함한 가공식품에 87억6200만원이 배정됐다. 올해는 수출물류비 지원 품목에 곡류(멥쌀·찰쌀·메현미·찰현미)·채소종자·버섯종균 등이 새롭게 포함된 것이 특징이다.

- 수출물류비 신청자격은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의 단일부류 수출액이 본선인도가격(FOB) 25만 달러 이상인 수출업체'로, 지난해와 동일하다. 다만, '일본수출채소류안전관리지침'에 따라 일본 채소류 ID제도 대상품목인 파프리카·방울토마토·오이·고추·깻잎은 ID 보유 업체만 신청이 가능하다.
- 물류비 규모는 수출전략품목 및 수출협의회 구성 품목의 경우 표준물류비의 10%가 지급되고 일반품목은 8%, 수출협의회 구성 품목 중 비회원사에는 6%가 차등 지원된다. 물류비 신청은 매월 10일 이전에 수출실적(전월 기준)을 수출지원시스템(<http://atess.at.or.kr>)에 입력하고, 수출물류비 지원신청서와 수출실적 증빙자료를 aT 각 지역본부에 제출하면 된다.
- 한편, 농식품부는 현재 수출물류비 지원 지침에 대한 개정작업에 들어간 상태로, 최근 공고된 지원지준은 상반기까지만 운영되며, 하반기부터는 지원요건 및 품목별·국가별 지원 단가, 지원 비율 등을 개편해 새롭게 적용할 예정이다.

*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

■ 밀라노엑스포 겨냥 한식홍보 '한국 밥상으로의 초대' 호응 홍보 강화

- 5월 1일부터 개최되는 이탈리아 밀라노엑스포를 겨냥한 한식 홍보행사가 진행돼 큰 호응을 얻었다.
-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식재단에 따르면 지난달 23일부터 5월 7일까지 보름간의 일정으로 이탈리아 로마 통일기념관에서 밀라노엑스포 사전 홍보행사 '한국 밥상으로의 초대'가 진행되고 있다.
- 이번 행사에서는 원정필 한식 명인의 전통한식 시연과 함께 통일기념관을 방문하는 이탈리아 현지인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약과와 강정, 오미자차 등 전통다과 및 전통차 시식행사가 진행돼 현지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또한 외국인 입맛을 고려한 한과와 매실을 주재료로 한 전통주 시음행사와 전통주 잔을 기념품으로 제공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 한편 농식품부와 한식재단은 이번 한식 홍보를 시작으로 김치버스 홍보(5.1~17일)와 한국의 날 만찬 개최(6월 23일), 현지 한식 마스터클래스(6월 중)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

■ 칠레농산물 개방 더 확대

- 양국, 6월 FTA심화 논의...391개 품목 대상 -
- 감귤·자두 등 신선과일과 축산물 대거 포함 -
- 한국과 칠레 정상이 2004년 발효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개방 수준을 상향 조정하기로 합의하면서 칠레산 농축산물의 추가 개방이 우려된다. 양국은 6월로 예정된 한·칠레 FTA 이행위원회에서 FTA 심화·발전(추가 개방)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 추가협상은 칠레가 먼저 꺼냈다. 한국과 칠레는 2002년 10월 FTA 협상을 타결하면서 칠레산 농축산물 1432개(HS 10단위 기준) 중 391개(27.3%)의 개방 일정은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이

끝난 뒤 논의하기로 했다.

- 당시 칠레는 한·칠레 FTA가 발효되는 2004년이면 DDA 협상이 타결될 것으로 봤지만, DDA 협상은 여전히 안갯속을 걷고 있다. 그사이 우리나라는 미국·유럽연합(EU) 등과 잇따라 FTA를 맺고 농축산물시장을 칠레보다 더 많이 열어 줬다. 'DDA 타결 지연'이란 돌발 변수를 만난 칠레로선 한국시장을 먼저 뚫은 선점 효과를 누리지 못한 것. 이에 칠레는 2006년부터 추가협상을 들먹이기 시작했다.
- 당초 우리 정부는 '추가 개방 문제는 원칙대로 DDA 협상 종료 이후 논의할 문제'라는 입장으로 대응해 왔다. 그렇지만 국내 산업을 중심으로 '한·칠레 FTA의 손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칠레는 한·칠레 FTA보다 높은 수준으로 중국·일본과 FTA를 맺었다. 이 때문에 우리 공산품의 칠레 수출이 주춤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대 칠레 수출액은 2007년 31억1500만달러를 기점으로 내리막길을 걸으면서 2014년에는 20억8300만달러에 그쳤다.
- 칠레시장에서 우리 제품이 고전하자 정부도 산업계의 요구를 수용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다. '농축산물시장을 좀더 개방하되 우리도 칠레의 공산품시장을 추가로 열어내자'는 것이다. 칠레는 우리나라에 철강·냉장고·세탁기 관세(6%)를 양보하지 않았지만, 중국·일본에는 관세철폐로 개방했다.
- 추가협상의 쟁점은 신선과일이다. 개방 일정이 합의되지 않은 농축산물 391개 품목(표 참조)에는 감귤·자두·파인애플·자몽과 같은 신선과일이 대거 포함돼 있다.
- 칠레는 외래 병해충이 쉽게 유입될 수 없는 자연보호막을 갖고 있다. 동서남북이 산맥·바다·사막·남극지대로 둘러싸였다. 남북 길이가 4000km에 달하는 등 기후대도 다양해 거의 모든 과일을

연중 저렴하게 생산한다.

- 2011년 포도 수확량은 315만t으로 우리나라(26만t)의 12배에 달했다. 자두는 30만t을 생산해 4억5500만달러어치(약 5000억원)를 수출했다. 국제 수출시장에서 칠레산 포도·자두 점유율은 각각 29%와 23%였다. 2002년 한·칠레 FTA 협상 타결을 앞두고 우리나라 국무위원들이 칠레산 자두를 시식한 뒤 ‘과일 개방 불가’ 결정을 내렸다는 후문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국제 과일유통업자들이 칠레산 과일을 구입할 때 당도 기준을 따로 요구하지 않을 정도”라며 “칠레산 과일시장이 활짝 열리면 국내산 과일, 특히 겨울을 전후해 생산되는 품목은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 감귤도 우려 품목 중 하나다. 남반구 국가인 칠레의 감귤 성출하기는 4~9월이다. 국내산 여름과일과 조생종 감귤 소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칠레는 한·칠레 FTA 발효 직후 우리 검역당국에 만다린·클레멘타인·블루베리·아보카도·자몽 5개를 특정해 수출허용 요청서를 보내왔다.
-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우리나라와 수확시기가 정반대인 칠레산 신선포도가 계절관세를 통해 국내 시장을 빠르게 잠식한 것처럼 칠레산 감귤 역시 (수입이 허용되면) 국내 과일시장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칠레산 포도 수입량은 2003년 9138t에서 2014년 4만7026t으로 11년 새 5배 넘게 늘었다.
- 축산물의 추가 개방도 우려된다. 쇠고기·닭고기·유제품과 일부 돼지고기 부위가 미합의 품목으로 남았다. 칠레는 2012년 우리 검역당국으로부터 쇠고기 수출자격을 획득했다.

* 출처 : 농민신문

5. 저비용 · 고효율 농업기술정보

■ 전남농기원, 미니단호박 2기작 재배 본격 추진

- 전남도농업기술원은 해남군에서 미니단호박을 1년에 2번 생산할 수 있는 2기작 재배 종합기술 현장실증을 추진한다.
- 전남도농업기술원(원장 최경주)은 해남군에 미니단호박을 1년에 2번 생산할 수 있는 2기작 재배 종합기술 현장실증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미니단호박 조기출하와 연중 생산기술 확립으로 시장 차별화 및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해남 계곡면과 옥천면에서 종합기술 현장실증을 한다. 지금까지 개발된 미니단호박 재배기술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연구하기 위해 정식기 조정 및 재식거리와 봉지 씌우는 시기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 이후 개발된 미니단호박 재배기술을 매뉴얼로 작성해 농업인들에게 보급한다.
- 지금까지 개발된 미니단호박 재배기술은 다겹보온기술, L자 유인망, 첫 착과마디, 대목선발, 고온기 육묘방법, 상품성 향상을 위한 봉지 선발 등이다. 2기작 재배시 보온덮개 자동개폐기기술은 영하의 날씨에도 미니단호박을 재배 할 수 있는 기술로 소비자들에게 연중 미니단호박을 공급하게 되었다는데 의미가 크다.
- 미니단호박은 겨울철 재배시 생육최저온도가 12℃로 상당히 높은 온도를 필요로 한다. 생산비중 난방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40%를 넘어 재배농민들이 겨울철 재배를 망설였던 작목이다.

- 하지만 단호박 무가온 하우스 2기작 재배 종합기술 현장실증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겨울철에도 소비자들에게 단호박을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고 재배하는 농민에게는 10a당 35만5000원 정도의 소득 증대가 기대되고 있다.
- 기술원 원예연구소 관계자는 "미니단호박은 국내에서 7~8월에 집중생산 출하되어 가격하락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해남에서 추진하는 종합기술 현장실증이 성과를 거둔다면 농가실증이 끝나는 대로 농가에 확대 보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한편 전남도 미니단호박 재배면적은 전국 1894ha 대비 33%인 635ha다. 함평, 해남, 신안 등에서 재배되고 있으며, 단호박 시장은 2011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결과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소비시장은 계속 커질 전망이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2015년산 벼, 맥류, 두류 등 우량종자 생산에 박차

- 양벼 9품종, 맥류 6품종, 밭작물 8곡종 등 총 80.7ha 재배 -
-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최경주)는 2015년산 벼, 맥류, 두류 등 주요 작물에 대한 재배계획을 수립, 표준관리 지침을 마련하는 한편, 무병 건전묘 육성을 위한 뽕씨 소독작업을 시작하는 등 우량종자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종자관리소는 올해 나주시 반남면 등 종자관리소 재배농지 80.7ha에 벼 9개 품종 40.5ha, 맥류 6개 품종 27.8ha, 밭작물 8개 곡종 12.4ha를 재배하여 벼 197톤, 맥류 78톤, 콩 등 밭작물 14톤 등 총 289톤의 종자생산을 목표로 영농작업에

매진하고 있다.

- 지난 2월에는 전라남도를 비롯하여 농업기술원, 국립종자원 전남지원, 시군 농업기술센터, 민간 RPC 등이 참여한 종자생산협의회를 개최하고 올해 재배할 원종 품종을 선정하였다. 이 중 벼는 농가 선호도가 높고 재해에 강한 새일미, 신동진, 동진찰 품종을 확대 재배하여 전남 쌀 품질고급화를 적극 도모키로 협의하였다.
- 한편, 종자관리소는 우량 벼 종자생산 목표 달성을 위해 5월 15일 첫모내기를 할 계획으로 지난 4월 11일부터 새일미 종자를 시작으로 벌써 소독을 실시하고 보온절충 못자리를 설치하여 건전모를 육성 중에 있다.
- 아울러, 하계 밭작물은 소비자 기호도가 높고 재해에 강해 농가가 선호하는 태광콩, 풍산나물콩, 해품콩과 충주팥, 다현녹두 등의 품종을 재배할 계획이며,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쥐눈이콩, 조, 수수, 율무, 기장 등 잡곡종자도 생산하여 재배를 희망하는 농가에 보급할 계획이다.
- 올해 맥류는 식용인 흰찰쌀보리, 새쌀보리, 맥주원료로 사용하는 호품보리, 청보리 종자인 영양보리 등 5개 품종과 금강 · 백중 등 밀 2개 품종을 지난해 10월 하순 파종하여 현재 병해충방제 등 생육관리에 만전을 다하고 있다.
-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종자관리소 관계자는“앞으로 작물별 파종 및 모내기를 적기에 실시하고 포장별 병해충 정밀예찰 방제 및 이형주, 잡초 제거 등 엄격한 포장관리를 실시하여 식량작물 우량 원종을 생산, 전량 국립종자원 전남지원에 인도하여 도내 농가에 필요한 보급종이 차질 없이 증식 생산·공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내 농가가 안정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한편,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종자관리소에서는 지난해에도 4억원의 국비를 포함한 8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벼, 맥류, 두류 등 원종 및 증식종 생산목표 290톤을 초과한 우량종자 403톤을 생산하여 국립종자원, 시군, 농협 등에 유·무상으로 공급하였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전남농기원, 농촌 청년사업가 양성사업 큰 호응

- 농촌에 돌아오는 청년들에게 창업 아이디어 발굴 지원으로 성공모델 농장화 -

- 전남농업기술원(원장 최경주)에서 최근 농촌에 돌아오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창업활동을 지원하여 성공모델로 양성하는 농촌 청년사업가 양성사업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 2010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을 통해 51명의 돈 버는 농촌 청년모델을 양성했고, 금년에도 예비 창업농 11명을 선발하여 지난 4월 3일부터 농업창업 비즈니스 모델 완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는 등 성공창업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 부모님의 가업승계를 위해 귀농한 영암군 ‘킴스팜’ 김태연(37) 대표는 “최근 음료시장 소비 트렌드가 설탕 함유량과 각종 합성 첨가물이 들어간 농축 환원주스 대신 과일과 야채를 섞어 만든 냉장주스나 착즙주스로 소비 수요가 변화하고 있고, 2014년 착즙주스 시장 규모는 330억으로 전년보다 10% 이상 성장하고 있다는데 착안하여 청년창업 프로젝트를 통해 친환경으로 생산된 과일만을 착즙하여 타제품과 차별화된 주스 상품을 개발하고, 유기농 강황을

이용한 기능성 강황배주스와 친환경 감을 이용한 천연발효 음료도 개발하겠다.”는 계획이다.

- 가족승계 농가의 표본이 될 수 있는 종합식품주식회사를 세우는 게 꿈이라는 진도의 처녀 농군 ‘미스팜’ 곽그루(24) 대표는 “최근 웰빙식품으로 소비 트렌드가 변화하고, 1인 가구,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면서 조리가 간편하면서도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천연 조미료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고, 진도에는 특이한 기후조건과 지리적 특성 때문에 천연조미료로 활용할 수 있는 농수산물도 다양하게 생산되는데 이것들을 가루형태로 가공한 된장찌개 키트를 개발하겠다.”는 사업계획을 제출하여 선정 되었다.
- 서울 토박이로 서울에 있는 전자제품 회사에서 직장생활을 하다가 귀농한 고흥의 ‘어설픈 농부이야기’ 최민주(39) 대표는 “많은 면적을 재배하는 농장에서 생산성 향상을 위해 수경재배와 당도가 낮은 가공용 토마토를 재배하여 토마토가 맛없는 과채로 인식되고 있는 현실에서 토마토의 당도를 최대한 높이고, 수분증발을 막아 신선도를 최대한 높일 수 있는 유기 토마토 재배를 실천하여 프리미엄급 명품토마토를 생산하고 브랜드화 하여 가격과 품질의 차별화로 부가가치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 전남농업기술원에서는 이들의 창업 아이디어 실천을 위해 자산증가 부분을 제외한 신제품 개발, 가공, 경영 및 유통개선 등 창업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농가별로 맞춤형 컨설팅 팀을 구성하여 주기적인 기술지원을 실시하게 되며,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농촌에 돌아오는 청년들과 변화를 시도하려는 농업인들에게 벤치마킹 자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 농촌 청년사업가 양성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전남농업기술원 김춘성 농산업연구담당관은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농촌 실현을 위해, 이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입하여 반드시 성공한 농촌 청년사업가 성공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고흥군, 고품질 마늘 생산 위한 기술교육 실시

- 철저한 배수구 정비 및 병충해 적기 방제 강조
- 고흥군(군수 박병중)은 최근 마늘 후기 생육기를 맞이하여 고품질 마늘생산을 위한 기술지도에 나섰다.
- 군 농업기술센터는 마늘통이 집중적으로 자라는 생육 후기에 맞춰 지난 20일부터 오는 30일까지를 마늘 생육 후기 관리 기술지도 기간으로 정하고 농가 현장 지도 및 교육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특히, 올해는 예년에 비해 강수량이 많아 습해피해가 우려되므로 철저한 배수구 정비와 잎마름병, 무름병, 뿌리응애, 선충 등의 병충해 예방을 위한 적기 방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군 관계자는 “마늘종이 나오는 시기와 마늘통이 커지는 시기가 일치하므로 마늘종을 적기에 제거하면 마늘 생산량이 15%까지 증가하고, 고품질의 마늘을 생산할 수 있다.”며 “마늘종은 뽑지 않고 잘라주는 것이 생산량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 현재 군은 마늘 생육에 관한 전화 상담 이외에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을 일제출장의 날로 정해 지도사들이 담당 읍면에 나가 현장

지도를 진행하는 등 기술지도에 힘쓰고 있다.

- 한편 고흥군은 전국에서 두 번째 큰 규모인 약 1,523ha의 면적에서 마늘을 재배하고 있으며, 매년 약 2만 여톤을 생산하고 있다.
- 특히 '고흥마늘'은 지난 4월 1일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제99호 지리적 표시 등록을 완료하여 그 명성을 인정받고 있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6. 정책동향

◆ 우수 후계농업경영인 지원 신청하세요

- 전라남도는 선발된 후계농업경영인의 영농규모 확대 및 경영 개선을 지원하는 ‘우수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 희망자 접수를 오는 5월 22일까지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 2006년부터 시작된 우수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은 정예 농업인력 육성을 위해 성공적으로 영농에 정착한 성장 단계의 후계농업경영인에게 자금을 추가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 신청을 희망하는 후계농업경영인은 해당 읍면사무소 및 농업기술센터에 사업 신청서 및 사업 계획서 등의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 지원자 선정은 시군 후계농업경영인 심의위원회, 전문기관(농림수산식품 교육문화정보원)의 인증심사 평가 후 전라남도 후계농업경영인 심사위원회에서 7월 초 최종 확정한다.
- 지원사업 신청 자격은 2010년 12월 말까지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 중 추가 지원을 받지 않은 후계농업경영인이다.
- 1인당 융자 지원금액은 2억 원 한도로, 연리 1%,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이다. 농지구입, 하우스 설치, 축사 시설 개보수 등 후계농업경영인들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 및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규모화 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
- 이번 사업 대상자는 시도 및 시군별로 배정하지 않고 전국적으로 300명 내외에서 선정되며, 선정된 우수 후계농업경영인에게는 융

자지원 외에 경영 심화교육 및 농업 선진지 연수 기회도 제공된다.

- 주순선 전라남도 농업정책과장은 “우수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이 젊은 영농 후계자 양성을 통한 농업·농촌 활성화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며 “전남의 우수 후계농업경영인이 전문 농업경영인으로 성장하도록 적극적으로 양성하겠다”고 말했다.
- 한편 전라남도는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1천103명의 우수 후계농업경영인을 선정해 총 900억 원을 융자 지원하는 등 우수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출처 : 전라남도

◆ 전남도, 10대 고품질 브랜드쌀 확정

- 전라남도가 13개 시군에서 추천된 17개 브랜드쌀을 대상으로 밥맛과 품질 및 외관 품위, 현장 심사 등 분야별 평가를 실시해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쌀’을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 선정된 10대 브랜드쌀은 보성 ‘녹차미인보성쌀’, 영암 ‘달마지쌀골드’, 담양 ‘대숲맑은쌀’, 나주 ‘드림생미’, 영광 ‘사계절이사는집’, 고흥 ‘수호천사건강미’, 강진 ‘프리미엄호평’, 영암 ‘하늘아래한쌀’, 해남 ‘한눈에반한쌀’, 무안 ‘황토랑쌀’이다.
- 이번 브랜드쌀 평가는 시중 판매 매장에서 2차에 걸쳐 시료를 구입해 한국식품연구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기술원, 보건환경연구원 등 전문 분석기관에 평가를 의뢰해 품질 혼입률, 외관 품위, 식미평가, 중금속 및 잔류농약검사, 서류·현장평가 등 2개월에 걸쳐 종합적으로 실시됐다.
- 평가 결과 전체 브랜드쌀의 항목별 평균 점수가 전반적으로 2014

년보다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위 브랜드쌀의 평가 점수가 상향 평준화되는 현상이 뚜렷해졌다.

- 전라남도는 5월 정례조회서 '2015년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쌀 시상식'을 한다. 선정된 브랜드쌀은 1천만원의 시상금과 '2015년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쌀' 표시, 각종 박람회 등 판매행사 우선 참여 기회가 제공된다.
- 보성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대표 안종환)의 '녹차미인보성쌀'은 고품질쌀 단지를 조성, 계약재배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 전남 10대 브랜드쌀에 8년 연속, 전국 12대 브랜드쌀에 5회 선정됐다. 영암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대표 배영수)의 '달마지쌀골드'는 친환경농법으로 재배되며, 2009년부터 전남 10대 브랜드쌀에 7년 연속, 전국 12대 브랜드쌀에 5회 선정됐다.
- 담양군 금성농협(조합장 양용호)의 '대숲맑은쌀'은 우렁이농법으로 생산되며, 2011년부터 전남 10대 브랜드쌀에 5년 연속, 전국 12대 브랜드쌀에 2회 선정되됐다. 나주시 동강농협(조합장 김재명)의 '드림생미'는 간척지 논에서 재배되며, 전남 10대 브랜드쌀에 12회, 전국 12대 브랜드쌀에 5회 선정됐다.
- 영광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대표 강선중)의 '사계절이사는집'은 우렁이농법으로 재배되며, 전남 10대 브랜드쌀에 7회, 전국 12대 브랜드쌀에 4회 선정됐다. 고흥군 홍양농협(조합장 송기재)의 '수호천사건강미'은 청정 해창만 간척지에서 재배되며, 2013년부터 전남 10대 브랜드쌀에 3년 연속, 전국 12대 브랜드쌀에 2회 선정됐다.
- 강진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대표 김응구)의 '프리미엄호평'은 생산된 원료곡을 저온저장 보관하고 있으며, 2006년부터 전남 10

대 브랜드쌀에 10년 연속, 전국 12대 브랜드쌀에 5회 선정됐다. 영암군 군서농협(조합장 김상재)의 ‘하늘아래한쌀’은 월출산 맥반석에서 나온 물로 영산강 간척지에서 재배되며, 전남 10대 브랜드쌀에 6회 선정됐다.

- 해남군 옥천농협(조합장 박재현)의 ‘한눈에반한쌀’은 고품질 브랜드쌀 계약재배로 생산되며, 2003년부터 전남 10대 브랜드쌀에 13년 연속, 전국 12대 브랜드쌀에 9회 선정됐다. 무안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대표 김태영)의 ‘황토랑쌀’은 게르마늄 성분이 풍부한 간척지에서 재배되며, 2010년부터 전남 10대 브랜드쌀에 6년 연속, 전국 12대 브랜드쌀에 2회 선정됐다.
- 전라남도는 선정된 브랜드쌀을 집중 홍보하고, 대도시 대형유통매장을 통한 공동마케팅을 추진할 계획이며, (사)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주관으로 실시되는 ‘전국 12대 고품질 브랜드쌀’평가 대상 브랜드쌀로 추천할 예정이다.
- 박균조 전라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공동마케팅과 집중적인 홍보를 통해 브랜드 인지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라며 “평가 결과를 세밀하게 분석하고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 ‘2015년 전국 12대 고품질 브랜드쌀’ 평가에서 전남 쌀이 13년 연속 전국 최다 선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전라남도

◆ “농식품부, 롯데와 함께 상생의 씨앗을 뿌린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4월 28일 롯데호텔에서 ‘우리 농식품 소비수출 확대와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롯데그룹(회장 신동빈, 이하 롯데)간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이번 협약식에는 농식품부와 롯데그룹뿐만 아니라, 농협중앙회, 동반성장위원회,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주체로 참여하였다.
- 이번 협약은 우리 농업의 활력 증진과 새로운 도약을 위해 기업의 역할을 강조한 대통령님의 의지가 반영된 사례로, 작년 11월 '농업 미래성장 대토론회'시 맺었던 롯데마트와 농업계간 상생협약의 확장된 형태로,
- 이는 그룹사가 주도하는 첫 번째 상생협약 사례이며, 금번 협약을 통해 롯데슈퍼와 친환경농업인연합회, 롯데푸드와 농업계 등 그룹 계열사간의 실질적 상생협력 사례들이 많이 도출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 협약은 지난해 12월부터 4개월여 간 십여 차례 사전 협의를 통해 준비해온 것으로서, 우리 농식품의 '소비 및 수출확대', '판로 및 할랄 인증 지원', '문화체험관광 등과 연계한 농업의 고부가가치화 등'이 주요 골자로, 이를 위해 롯데와 농업계가 보유한 인프라와 노하우가 총 동원될 전망이다.
- 우선 롯데는 지역의 농산물을 일괄 구매하여 상품용(유통사)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유통망을 활용하여 생식용으로 판매하고, 원료용(식품사)은 제조계열사를 통해 음료, 과자, 식품 등 가공 원료로 사용할 계획이다.
- 또한, 롯데리아롯데마트 등 해외유통 인프라를 활용하여 우리 농식품의 해외진출 확대를 지원할 예정으로, 특히 최근 농식품분야의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는 할랄 시장 진출을 위해 중소기업 대상 할랄인증 지원과 시장진출 노하우를 적극 전수할 방침이다.

- 뿐만 아니라, 유기농 판매를 확대하고, 농산물의 생산, 제조, 가공, 판매, 문화, 체험, 관광 등과 연계를 통한 우리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롯데가 보유한 역량과 자원을 배분한다는 계획이다.
- 농식품부 이동필 장관은 “농업과 식품기업의 상생협력은 우리 농축산물의 수요 확대와 우리 농식품의 해외진출을 위한 핵심사업임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농업계와 기업간 상생협력의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롯데그룹 이인원 부회장은 “그룹의 다양한 사업영역과 역량을 활용하여 개별 계열사 차원에서 진행되던 농업계와의 상생협력을 보다 체계화하고, 국내 농식품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다양하게 연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밖에도, 이날 협약식에는 추진본부 공동본부장을 맡고 있는 박종갑 대한상공회의소 본부장과, 협력기관인 동반성장위원회 안충영 위원장 등이 참석하여 농업계와 기업간 상생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했다.
- 아울러, 금번 협약식에서는 이슬람문화권에 판매되는 롯데 계열사의 주요 수출품목에 대한 전시를 통해, 참가한 관계자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끌었다.
-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 농업계-기업 간 선도적인 상생협력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확산해 가는 한편, 기존 체결 기업의 이행상황 점검 등을 통해 국산 농식품의 수요 기반을 넓히고 수출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또한, 대한상의 상생협력 추진본부를 통해 기업과 지자체를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5~6월) 및 상생협력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상생협력 참여 농업계와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화 방안을 모색하는 등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분산된 농촌산업육성정책, 추진체계 통합 시급”

-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통한 농촌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제도정비와 함께 농촌산업의 역할 및 위상정립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기적인 구성과 계획에 따른 단계별 맞춤형 육성정책 필요성도 제기됐다.
- 김광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의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통한 농촌산업정책 개선방안’에 따르면 농촌은 혁신의 투입요소가 부족하고 지역혁신체계 구성 요소 간 영향구조도 미약하다.
- 다만, 도·농 복합시의 경우는 산업기반이 오히려 일반 시보다 양호해 기업입지 및 산업형성에 있어서 경쟁력이 향상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 지역혁신체계 경로구조 분석 결과 전형적인 농촌지역인 군의 경우 산출부문(혁신·생산성·번영)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투입요소가 인적자본과 산업기반에 국한되고 있다. 즉, 전형적인 농촌일수록 산업 활동을 촉진해 기업을 유치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인적자본을 육성하는 것이 정책의 가장 우선적인 목표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 또한 농촌은 지역혁신체계의 산출부문 요소 간에도 ‘혁신창출-기업의 생산성 증대-지역의 번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매우 미약한 것으로 분석됐다.
- 특히 지역혁신체계 관점에서 농촌산업 육성정책(신활력 사업·향토산업 육성사업)을 평가한 결과 농촌지역에 실질적인 산업기반을 확충하는 데에는 부족했다. 인적자본의 경우 지역의 리더 양성에는 많은 기여를 했지만 실질적인 산업인력 육성에 대한 기여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업화 확대·성장에 필요한 새로운 인력양성이나 지역 노동력의 기술수준 향상 등에 대한 기여가 부족했다.
- 네트워크는 주로 컨설팅 지원에 머무르는 한계를 보였다. 신활력 사업이나 향토산업 육성사업 모두 대학, 연구기관, 전문 인력 등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했으나 지역자원을 활용한 제품·서비스 생산 과정에서 연구개발(R&D) 및 기술개발 등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협력 네트워크 구축은 적극적으로 지원되지 못했다.
- 이와 함께 비즈니스 문화 또는 거버넌스 체계 구축·운영이 각 지역의 농촌산업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데 많은 한계를 보였다. 신활력 사업의 경우 지역혁신협의회가 사업추진 초기에는 활발히 작동했으나 이후 관변단체 성격으로 변질돼 실질적인 비즈니스 문화형성에 기여하지 못했다. 향토산업 육성 사업도 클러스터형 사업추진단 구성을 의무화했지만 사업추진 과정에서 지역 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반영하는 데는 한계를 보였다.
- 김광선 연구위원이 제시한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통한 농촌산업 육성 방향은 크게 3가지다. 먼저 농촌산업 육성정책 마련을 위한 제

도 정비 필요성으로 다기화되고 분산된 농촌산업 육성정책 사업을 하나의 종합적 지원 법률과 육성계획, 사업추진 체계로 통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은 농촌산업의 역할과 위상정립이다. 김 연구위원은 “농촌산업의 개념과 범위부터 정립해 제도적 측면뿐만 아니라 정책의 내용적 측면에 이르기까지 농촌산업 육성정책의 틀을 갖춰야 한다”며 “아울러 농촌산업 육성정책이 기존 산업정책 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정책, 교육정책, 과학기술정책, 문화정책, 환경정책, 고용정책, 기업정책 등 다양한 정책을 지역을 매개로 통합하는 매우 중요한 정책이란 위상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인 구상·계획을 바탕으로 단계별 맞춤형 육성정책 추진 필요성을 제기했다.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

7. 해외 농업정보

◆ 멕시코, 조류독감이 발병한 아이오와로부터 가금류 및 계란 수입금지

미국산 닭고기의 최대 수입국인 멕시코는 미국 아이오와에서 치명적인 조류독감이 발병함에 따라 미국으로부터 가금류 및 계란수입을 중단하였다. 지난달 멕시코와 다른 주요 국가들은 미국산 가금육 식품에 대해 새로운 수출제한을 부과하였으나 최근 미국 최대 계란 생산지역인 아이오와에서 조류독감이 발병하게 된 것이다. 월요일, 아이오와의 수백마리 산란계에서 치명적인 조류독감 형질이 발견되었으며 이는 위스콘신 주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게 된 최악의 국가적 질병발생 상황이라고 한다. AI라고 불리는 조류독감은 조류를 감염시키는 치명적인 질병이다. 당국자들에 따르면 야생조류들이 바이러스를 확산시키고 있으나 어떻게 유입되는지 그 경로는 알 수 없다고 한다. 한편 아이오와 조류독감 발병에 대한 우려로 몇몇 주요 미국의 육류회사들은 배당이 감소했다. 또한 멕시코 농식품위생품질청(SENASICA)은 이주 야생조류들에 대해 통제를 엄격하게 하며 이들을 주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멕시코 국내의 의심스러운 경우를 탐지하기 위해 멕시코 조류농가와 지속적인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고 한다. 멕시코 농업부장관에 따르면 소비용 계란은 자급자족하고 육종용 수정란을 수입하도록 강조하고 있다. 아이오와는 올해 이후 가금류에서 조류독감이 발견된 12개의 주 중 하나이다. 다른 주에는 아칸소, 아이다호, 캔자스, 미네소타, 미주리, 노스다코타, 오리건, 사우스다코타, 워싱턴, 위스콘신이 있다.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외시장곡물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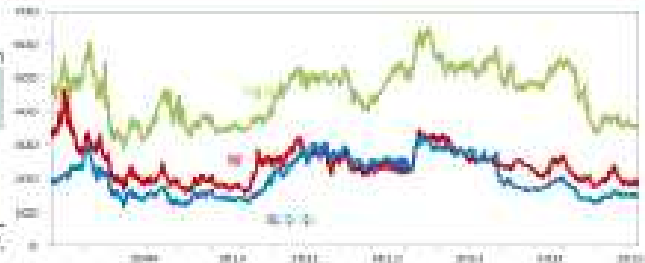
◆ 해외 곡물시장 일일동향'15. 4. 28.(시카고 선물거래소)

옥수수 및 밀가격, 미국의 이상적인 기후로 6개월래 최저치로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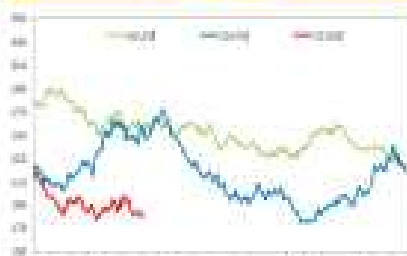
시카고선물거래소의 곡물선물가격

구분	기준일 (15.4.27)	전일대비	전월평균 (15.3)	2014 평균
밀	172.77	▼3.2%	187	216
옥수수	141.96	▼1.0%	151	164
대두	367.51	▲0.4%	380	455

주) 시카고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밀(북미연상밀, 5570), 옥수수(대두피수분율), 옥수수(대두:5월물), 콩상가대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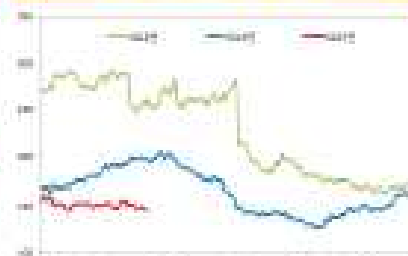


밀 선물시장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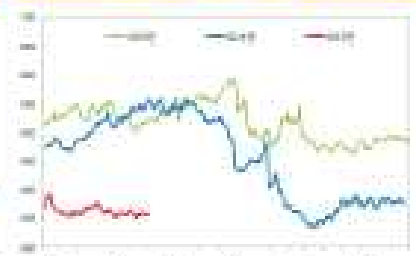
미국산 밀 선물가격은 남부지역의 하강에 이상적인 기후로 하락했음.

옥수수 선물시장 상황



미국산 옥수수 선물가격은 미국 중서부지역의 빠른 옥수수파종 전망으로 10월 이후 최저치로 하락했음. USDA에 따르면 일요일 기준 미국의 옥수수파종은 21% 완료가었으며 이는 지난해 파종속도를 상회하는 수준이라고 함.

대두 선물시장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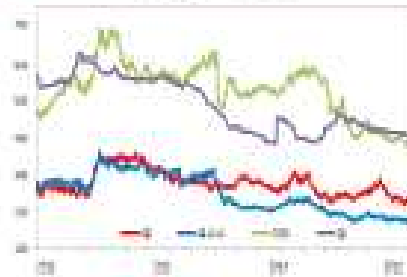


미국산 대두 선물가격은 수출수요 감소에 동반한 하락했음. USDA에 따르면 미국재작곡으로 미국산 대두 158,000톤이 판매되었다고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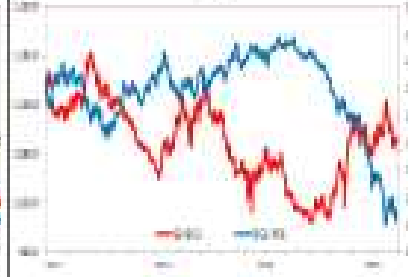
관련동향

- 미국산 곡물 수출가격은 대두를 제외하고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 WTI 선물유가는 사우디의 석유시장 차분함에 의지하며 등락을 하향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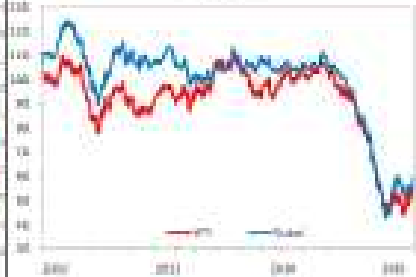
곡물 수출가격 (FOB)



환율



국제유가



구분			기준일	전일대비	구분			기준일	전일대비
곡물수출가격 (FOB)	밀	221	▼0.5%	환율	원/달러	1,079	▼0.4%		
	옥수수	178	▼0.6%		달러/유로	1,098	▲0.4%		
	대두	380	▲0.8%		국제유가	WTI	57.15	▼1.0%	
	쌀	400	-			Brent	61.43	▲0.8%	

주) 1) 밀(CS 35W Gal), 옥수수(CS 35W Gal), 대두(CS 35 Gal), 쌀(Thailand 100# Grade B), WTI(18월물), Brent(18월물)

2) 기준일은 '15.4.26(수출가격), '15.4.27(환율), '15.4.24(국제유가)이며 좌표출처(국제곡물리사회, 한국농협, 한국석유공사)에 열람하고 날짜에 따라 상하할 수 있음.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외곡물시장정보

8. 고소득 농업사례

■ 전남농기원 창업지원, 고구마 먹인 돼지고기 명품화

- 해남 ‘땅끝포크’ 서정훈 대표, 농촌 청년사업가로 성장 -
- 축산물 수입확대와 사료 값 상승, 구제역 발생 등으로 갈수록 어려워지는 축산업 시장에서 차별화된 아이디어로 위기를 극복하고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하는 농촌 청년사업가가 있다.
- 해남 ‘땅끝포크’ 서정훈(40) 대표는 전남농업기술원(원장 최경주)에서 추진하는 청년 사업가 양성 사업을 통해 ‘황토 고구마 먹인 돼지고기’의 브랜드 이미지를 향상시키고 직거래를 활성화해 지역에서 촉망받는 양돈 사업가로 성장했다.
- 서 대표는 공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3년 동안 무역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07년 고향인 해남으로 내려왔다. 방앗간과 한우 및 양돈 사업을 해 오시던 아버지의 건강이 악화되자 농장 일을 돕기 위해 내린 결단이였다. 고향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다 아버지 사업을 잇게 되었고, 단순 양돈 생산에서 제품개발과 유통까지를 아우르는 양돈의 6차 산업화를 구상하게 되면서 그의 양돈 사업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 농사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부족했기에 사업을 시작하며 직장생활을 통해 모아둔 적금을 털고 대출을 받아 무리하게 양돈 시설의 현대화를 추진하다 보니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됐다. 시설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농사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많은 지식과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 여긴 서 대표는 전남농업기술원과 해남군농업기술센터를 찾았다.

- 서 대표는 e-비즈니스, 청년 CEO 양성, 농업인대학 마케팅반, 최고경영자과정 등 필요한 교육을 차례로 이수하게 되면서 농업에 비로소 눈을 뜨게 됐고 2014년 농업 청년사업가 양성사업의 비즈니스 모델개발 과정을 통해 사업계획을 구체화 할 수 있었다. 해남군에서 취득한 특허 ‘고구마 먹인 돼지고기 땅끝포크’를 사업화하고 직매장을 개설해 친환경 인증과 HACCP 인증을 받은 돼지고기를 유통해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 또한, 뒷다리 살 등 소비자가 외면하는 비 선호 돼지고기를 소시지 제품으로 개발해 부가가치를 높이는 등 경영의 안정화를 도모했다.
- 그리고 소비자에게 친근감을 주고 고구마 먹인 돼지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고구마와 돼지를 합성해 형상화한 BI를 개발했으며, 돼지고기의 상태와 부위에 따라 포장재 크기와 재질을 구분해 소비자가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소포장으로 제작했다. 돼지고기의 신선한 색감이 변하지 않고 진공상태로 소비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가스치환 포장재를 이용해 유통의 차별화를 시도했다.
- 또한 무항생제, 친환경 축산물 인증, HACCP 시설을 갖춰 위생적으로 생산된 돼지고기만을 판매하고, 판매촉진을 위해 명랑축제 등 지역행사에 참가해 고구마 먹인 땅끝포크의 우수성을 소비자에게 적극적으로 알렸다.
- 더불어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트위터, 페이스북을 이용한 온라인 홍보와 학교급식, 대형마트 등으로 유통채널의 다양화를 시도했다.
- 서 대표의 이러한 노력은 소비자의 신뢰로 이어져 전년도 매출 2억 1천만 원에서 2014년 3억 3천만 원으로 1.5배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 서 대표는 “고구마를 먹인 땅끝포크는 일반 돼지고기에 비해 노린내가 없고 비계가 찰지며 쫄깃쫄깃하고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포함돼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좋은 미네랄(칼슘, 인) 성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다. 육질 또한 연하고 부드러워 맛이 좋다”고 강조했다.
- 서 대표는 “고구마 먹인 돼지고기 땅끝포크의 품질 우수성을 소비자에게 알려 프리미엄급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차별화 전략을 강구해 나가고 한편으로는 다양한 가공제품도 개발해 부가가치를 높여 나가겠다”며 이를 위해 “소비자가 생산에서 가공까지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체험장을 운영해 우수고객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김춘성 농산업연구담당관은 27일 “농촌에 돌아온 청년들이 수입 개방, 경영비 상승으로 돈 되는 농업을 실천하기는 쉽지 않다”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성공한 농촌 청년사업가 성공모델을 양성해 우수사례를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전남 유기농 선도 농가를 찾아서—장흥한라농장 광석주 대표

— '주경야독' 38년간 버섯 외길...年 2억5000만원 매출 —

- 광석주 대표가 장흥군 유치면 신흥리 일원에 조성한 7ha에 이르는 표고버섯 재배단지에서 버섯의 생태와 특성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자연의 식품 표고버섯. 기온과 습도에 민감하고 햇볕이 드는 곳은 잘 자라지 않아 재배하기 까다로운 작목 중 하나다.

- 이렇다 보니 버섯 생산은 비닐하우스 등 시설안에서 자연이 아닌 인위적인 재배법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 이러한 국내 많은 버섯재배농가들과는 달리 경사진 산비탈에 버섯 원목을 세워 자연에 순응하며 버섯을 재배하고 있는 이가 있다.
- 주인공은 공기 맑기로 소문난 장흥군 유치면 신흥리에서 '장흥한라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곽석주(64) 대표.
- 장흥은 국내 최대의 표고버섯 주산지로, 전국 표고버섯의 25%를 생산하고 있다. 이러한 장흥에서도 표고버섯의 장인으로 통하는 이가 바로 곽 대표다.
- 7ha에 이르는 넓은 공간을 이용해 시설재배가 아닌 노지재배를 통해 버섯재배에서는 흔하지 않은 유기농법을 이어오고 있다.
- 경사도가 30도는 넘어보이는 산비탈을 100여m 올라가야 곽 대표의 버섯농장을 만날 수 있다. 그만큼 순수한 자연 그대로의 환경을 유지할 수 있다.
-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옛말이 있지만 곽 대표는 표고버섯 재배로만 38년을 이어 왔으니 버섯장인이라는 칭호를 붙여도 전혀 손색이 없는 국내 표고버섯의 전문가다.
- 곽 대표의 고향은 장흥이 아닌 제주도다. 버섯 재배를 처음 시작한 곳도 장흥이 아닌 전북 진안이다.
- 이런 곽 대표가 장흥에 터를 잡고 국내 최고의 표고버섯 전문가가 되는데는 장흥이 온도와 습도 등 버섯을 재배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었다.

- 곽 대표가 처음 버섯재배를 시작한 것은 지난 1978년이다. 국내 버섯재배의 선구자적인 인물이었던 부친의 가업을 이어 진안에서 버섯재배를 시작했다. 하지만 진안은 평야지대가 많아 버섯원목을 구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 그래서 찾게 된 곳이 현재의 유치면이다.
- 1983년 당시 28세의 나이였던 곽 대표는 새롭게 장흥에 터를 잡고 본격적인 버섯재배에 들어간 것이다.
- 부친의 가업을 이어 버섯재배를 시작했다고는 하지만 전문적인 지식은 없는 상태였다. 버섯에 대한 전문지식을 쌓기 시작한 것은 일본산림조합에서 만든 버섯 전문서적이었다.
- 당시 국내에는 버섯재배법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기관이 전무한 상태나 다름없었다. 이 때문에 낮에는 직접 버섯을 재배하고 밤에는 일본어로 된 서적을 바탕으로 공부를, 그야말로 '주경야독'으로 표고버섯에 대한 재배법을 익혀갔다.
- 1985년 이후에야 국내에 번역본 버섯서적들이 하나 둘씩 나오게 되면서 버섯재배 기술이 보급되기 시작했다.
- 곽 대표도 이때 농업기술진흥청에서 실시한 교육과정을 통해 부족했던 재배법을 익힐 수 있었다.
- 표고버섯을 재배하기 위해서는 2년이라는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다. 나무에 영양분이 가장 풍부한 가을 단풍이 들 시기인 11~12월 사이에 참나무를 베어 버섯원목을 확보해야 한다. 이때 베는 나무가 수분함량도 버섯을 재배하기에 가장 적절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이후 이듬해 3월 초순에서 5월 말까지 나무에 2.7cm의 구멍을 뚫

어 식균작업을 해야 한다. 식균 후 150일이 지나야 나무 전체로 균이 활착한다. 이때 온도와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해 주는게 버섯 생산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

- 다시 1년의 숙성기간을 거쳐 그 이듬해 9월 나무세우기를 통해 본격적인 버섯생산에 들어가게 된다.
- 나무세우기 후 적절한 습도가 유지해 5~7일이 지나면 진한 버섯 향이 나는 자연 그대로의 표고버섯을 수확할 수 있게 된다.
- 과거에는 식균작업 후 병충해 피해가 극심했다. 하늘소벌레에 의해 식균한 목재 중 20% 이상이 피해를 봤다. 이 때문에 버섯재배 농가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살충제를 사용할 수 밖에 없어 버섯의 유기농재배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
- 하지만 곽 대표는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식균 목재에 비늘방을 씌워주는 방제법을 터득하게 됐고, 이로 인해 살충제 사용없이도 병충해를 극복할 수 있게 됐다.
- 또 다른 농가들과는 달리 산비탈에서 버섯을 재배하다 보니 햇빛에 노출되는 문제가 가장 큰 걱정거리였지만, 곽 대표가 고안해 낸 차광막을 통해 이를 극복할 수 있었다.
- 이러한 과정을 거쳐 곽 대표가 표고버섯의 유기농 인증을 받기까지는 6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다. 일반재배에서 무농약, 전환기 유기농, 유기농으로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이를 이겨낸 것이다.
- 현재는 생산뿐 아니라 가공에서도 유기농 인증을 획득한 상태다.
- 생산뿐 아니라 가공도 직접하고 있다. 농업기술원과 농업기술센터로부터 지원받아 건조기 등 고가의 장비를 들여와 안전하고 위

생적인 가공작업을 하고 있다.

- 또 판매도 제3자를 거치지 않고 소비자와 직접 통하고 있다.
- 대규모의 장흥한라농장을 많은 인원이 아닌 껍 대표와 부인인 현화주(59)씨 단 둘이서 운영하고 있다보니 어찌보면 당연한 일일수도 있다.
- 판매부분은 부인이 담당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상품은 직거래를 통해 판매하고 있다. 전남농업기술원 교육을 통해 인터넷으로 소비자와 1대1 소통을 하고 있다.
- 껍 대표가 소비자와 직거래를 하게 된 동기는 버섯 생산에 대한 장인정신에서 비롯됐다고 한다.
- 유명 쇼핑몰 등에 납품하면 쉽게 판매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할 경우 가격적인 부분을 고려하게 돼 원가에 맞추다보면 품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계속되는 요청을 모두 거절하고 직거래를 이어오고 있다고 한다.
- 최근에는 제품의 품질과 가격 모두 껍 대표의 요구를 수용한 현대백화점에 장흥한라농장의 가루제품과 백화고를 소량 판매하고 있다.
- 버섯은 4기작 작목으로 노지에 설치한 원목을 통해 첫 수확 후 4년간 수확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껍 대표는 연간 2억5000만원 정도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
- 이렇듯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는 껍 대표에게도 근심은 있다.
- 최근 국내도 기후변화의 징후가 이어지고 있어 이에 적응할 수

있는 버섯품종 개발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 보통 신품종 개발을 위해서는 7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데 매년 변하고 있는 기후에 적응할 수 있는 버섯품종 개발에 손을 놓고 있다가는 몇 년 후가 되면 국내 버섯재배 농가의 몰락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 현재 국내에서 재배하고 있는 버섯 품종은 20여년 전 개발된 것으로, 꺾 대표의 이러한 고민이 단지 기우에 그치는 것이 아닌 살아남기 위해서는 필수라는 것이다.
- 꺾 대표는 이러한 위기감에도 굳건히 지켜나가고 있는 것이 있다. 바로 '버섯은 자연 그대로 재배하는게 가장 좋다'는 신념이다.
- 꺾 대표는 "버섯은 자연식품이기 때문에 자연을 통해, 자연의 변화에 적응하며, 자연에 맡겨, 자연이 주는 양만큼 수확하면 그게 가장 좋은 버섯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다"고 강조했다.
- 버섯재배를 시작하려는 초보 임업인들에 대한 당부도 아끼지 않았다.
- 꺾 대표는 "자신이 개발하고 판매해 소비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야 한다. 관행농법을 답습하지 말고 기초부터 이론교육으로 내공을 쌓고 버섯농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이어 "모든 것을 경영의 관점에서 봐야하며 전문가 정신없이 성공할 수 없다"며 "표고 하나하나 선별하는 과정 등 어느 것 하나 등한시 하지말고 정성을 들여야 성공할 수 있다"고 충고했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9. 사업신청 안내

◆우수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 신청·접수

- 신청기한 : 5. 22.한
- 신청대상 : 2010년 12월말 이전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농업인
- 접 수 처 : 읍·면·동사무소, 시군 농업기술센터
- 선발인원 : 300명(전국)
- 선발기준 : 교육훈련, 경영관리 등 13개 지표, 27개 항목 평가
- 선발절차
 - 농업인(신청) → 시장·군수(추천대상자 선정) → 농정원(인증심사 평가)
→ 도(심사위원회 선정) → 농식품부(확정)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신청

- 가입품목 : 벼, 고구마, 옥수수
- 가입기간 : 5. 4. ~ 6. 12.(벼 4. 20.~6. 5, 고구마 5. 4.~5. 29. 등)
- 가입자격 : 벼 1천m², 고구마 2천m², 옥수수 3천m² 이상 재배농가 및 법인
- 사 업 량 : 600ha/46개 품목(본사업 28, 시범 18)
- 사 업 비 : 600억원(국비 300, 도비 60, 시군비 120, 자담 120)
 - 재원비율(100%) : 국비 50, 도비 10, 시군비 20, 자담 20
- 취급기관 : 지역농협
- 보험금 지급 : 보험사고 발생 시 피해 정도에 따라 보험 가입 시
선택한 보장수준에 따라 산정 지급

◆ '15년도 녹색축산육성기금 용자사업 신청·접수(2차)

- 사업기간 : '15. 1. ~ 12.
- 용자규모 : 150억원(금회 2차 선정-48억원)
- 용자대상 : 친환경축산물 인증 또는 HACCP 인증 농가, 친환경축산물 가공·유통·판매업체 등
- 지원내용
 - 가축 사육환경 개선, 친환경축산물 가공·유통·판매 지원, 원료구입 등 운영자금, 기타 친환경 축산에 필요한 정책사업 등

주간

전남농업정보

32

전라남도 농업정책과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우) 534-700

Tel. 061-286-6253

Fax. 061-286-4782

